

트럼프 “이란전쟁 꽤 빨리 끝날 것…공세완화 없다”

대이란 군사작전 종료 시점과 관련해 ‘매우 곧’ 언급 모즈타바 승계 “실망”…“이란 지도자 아무도 몰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미-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이 미국에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곧 끝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 도달 리조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이란 군사작전과 관련해 “우리는 매우 결정적으로 승리하고 있다. 계획보다 훨씬 앞서 있다”며 “곧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다시 시작된다면 그들은 훨씬 더 강력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도 대이란 군사작전 종료 시점과 관련해 “매우 곧”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로 열흘째 계속된 대이란 군사작전 성과에 대해 이란 함정 51척을 격침했으며 미사일 시설 등 5천개 이상의 표적에 대한 타격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날부터 드론 제조시설에 대한 타격도 시작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미사일 능력은 10%나 그 미만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사망한 아이틀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후계자로 그의 차남인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선출한 데 대해 “실망했다”며 “왜냐하면 우리는

그 선택이 결국 이란에 동일한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는 이란 지도부를 두 번, 어쩌면 세 번 제거했다”고 거듭 주장하며 “우리는 개입하길 원한다. 우리는 세계와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해 내가 기꺼이 하려는 일을 하지 않을지도 모르는 또 다른 지도자가 집권하게 되면서 지금으로부터 5년이나 10년 뒤에 이런 상황에 발목 잡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테러 정권이 세계를 인질로 잡고 국제 석유 공급을 차단하려는 시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이란이 그런 시도를 한다면 훨씬 더 강력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란전 이후 국제 유가가 출렁이는 상황을 의식한 듯 “장기적으로 이란 선박·드론·미사일·핵무기 위협 등 어떤 위협도 없이 석유 공급은 훨씬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는 이 모든 위협을 단번에 종식할 것이고, 그 결과 미국 가정의 석유 및 가스 가격이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울러 유가 안정을 위해 일부 국가에 대한 석유 관련 제재를 일시적으로 해제하고, 필요할 경우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 호위 조치도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통화에도 “우리는 당연히 중동 문제를 이야기했고 그는 도움이 되고 싶어 했다. 나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을 종식하는 것이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우리는 아주 좋은 대화를 했고, 그는 매우 건설적으로 나서고 싶어 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같은 장소에서 열린 공화당 행사에서도 “이 일(전쟁)이 끝나면 세계는 훨씬 더 안전해질 것”이라며 “꽤 빨리 끝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전쟁이 “몇몇 사람(이란 지도부)을 제거하기 위한 여정”이었다면서 “단기간의 여정(작전)이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은 큰 강대국으로 여겨졌지만, 우리는 그들을 완전히 박살 냈다”며 “그들의 테러 지도자들은 이미 사라졌거나, 곧 사라질 때를 카운트다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나라의 지도자가 누가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난 그들이 언제 항복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이를 전에 항복해야 했다”며 “그들에게는 이제 남은 게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여러 측면에서 이미 이겼지만 우리는 총 분히 이기지 않았다”며 당장 전쟁의 ‘출구’를 언급할 때는 아니라는 인식도 드러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미-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이 미국에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곧 끝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란 여자 축구대표 5명, 호주 망명 허용 트럼프의 ‘망명 허가 축구’ 직후에 인도주의 비자 발급

호주가 여자 아시안컵 경기 중 국가 연주 때 침묵했던 이란 여자축구대표팀 선수 5명에 대해 망명을 허용했다고 10일(현지시간)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토니 버크 호주 내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쳤다고 밝혔다. 버크 장관은 선수들이 “안전한 장소”

로 이송된 후 직접 이들과 면담했으며, 이 자리에서 관련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이란 여자축구대표팀은 총 20명으로, 추가 망명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9일 트루스 소셜에서 이란 팀의 망명 허가를 촉구한 직후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주는 이란 여자 축구 국가대표팀이 살해될 가능성이 높은 이란으로 돌아가도록 허용함으로써 끔찍한 인도주의적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며 “망명을 받아주라.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미국이 그들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적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글을 올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통화한 사실을 소개한 뒤 “그가 이 문제를 해결 중!”(He’s on it!)이라며 “이미 5명은 보호 조치가 이뤄졌고 나머지도 이동 중”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CUSTOMER SATISFACTION

고객 만족 실현을 최우선으로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DH Group

